

목포시,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 부상

경희대 농구팀 등 400여명 구슬땀 체육대회·전지훈련 유치 경제 활력 선수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시설 확충 다양한 종목 유치 목표

온화한 기후와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목포시가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1월 기준 경희대

학교 농구팀, 한국여자축구연맹 초등부 선수단, 서울 영남중학교 야구부 등 4개 종목에서 400여 명의 선수단 및 지도자들이 목포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오는 2월까지 이어지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 축구, 육상, 하키 등 총 6개 종목 144개팀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시를 찾아 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초부터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소속 U-12 12개팀

500여명이 참가하는 유소년 스포브리그 개최로 학부모 동반 800여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관광 비수기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보탬이 됐다.

시는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전지훈련 인센티브(목포사랑상품권) 지원과 선수단 이동버스 및 훈련용품 증정,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전

담하는 전지훈련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과 보수보강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유치해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오는 5월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을 앞두고 있다. 선수단이 경기력 향상 및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대거 목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포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자연사박물관, 겨울방학 맞이 체험 교육

‘공생의 바다’ 테마전

목포자연사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및 가족 관람객을 위한 ‘겨울방학 상설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체험교실은 ‘즐거운 클레이(점토) 시간’을 주제로, 클레이로 해양생물인 ‘목욕해면’과 ‘불가사리’를 본떠 만든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무척추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양생태계 속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테마전 ‘공생의 바다’와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토

요일(오후 1시30분·오후 2시30분·오후 3시30분) 총 3차시에 걸쳐 목포자연사박물관 디스커버리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체험료는 3000원이다.

체험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mokpo.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목포자연사박물관(061-270-4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제공해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건강한 우리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진행

시설보호아동 60명 대상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도움

목포시는 오는 2월 28일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설보호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놀이 기반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건강한 우리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시설 내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우리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1회 4~7명의 아동들과 시설이 아닌 외부공간(카페 등)에서

놀이를 통해 아동들과의 친밀성 및 관계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보호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아동보호팀에서는 시설보호아동들의 보호 상태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감회 운행

방학 맞아 3개 노선 축소

목포시 시내버스 시계의 노선이 2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감회 운행된다.

목포시는 방학기간을 맞아 버스 이용객 수요가 감소하는 무안 방면 시계 외 3개 노선 108번, 200번, 800번을 감회 운영해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노선별 감회 현황을 살펴보면 108번이 21회에서 14회로, 200번이 35회에서 25회로, 800번이 12회에서 8회로 각각 감회 운행된다.

목포시관계자는 “방학기간 수요감소와 해당 노선 운수종사자 채용 지연으로 감회를 결정했다”라며 “방학이 끝나고 운수종사자 채용이 완료되는 3월 부터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며 버스 이용객께서는 운행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차량 내부 및 주요 정류장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행시간표 변경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및 교통정보센터(its.mokp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양경찰 관계자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국적 어선 A호의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난 中 어선 구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화재가 발생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17톤 9명·타망어선)의 구조에 나섰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49분께 A호 인근 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VHF를 통해 신안군 가거도 서방 81km 해상에서 A호에 화재가 발생했

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해경은 잔불 화재를 진압하며 인근 항행 선박 대상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섰다.

A호는 선원 침실 내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없이 자체 진화했으나 엔진과 전자장비 등의 불량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서 발생한 외국 선박의 해양사고 대응 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주권 수호를 위한 법 집행 역시 엄중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호는 중국 선단선에 의해 예인되어 자국으로 이동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24일까지...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기시간 단축·교통 편의 향상

목포시는 오는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65세이상 노약자·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

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가되면서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 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